

# 제주도 방언에서 빛깔 형용사와 '하다'의 결합 양상

김 미 진\*

— 차                      례 —

1. 서   론
2. 현대국어의 형용사의 특징
3. 제주도 방언에서의 빛깔 형용사
4. 중세국어의 빛깔형용사
5. 결   론

## 1. 서   론

국어에서 '하다'는 서술기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생산적인 요소이다. 한자어, 고유어를 막론하고 많은 어근, 명사, 혹은 부사 등이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나 형용사를 이룰 뿐 아니라 문장의 어미 뒤에 독립적으로 쓰여 서술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sup>1)</sup>

'하다'의 발생은 우리말 어휘체계 안에서 통사적 기능이 같은 것들을 대신 통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유개념 어휘의 필요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 라는 두 단어를 통합해서 표현하는 '어버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개, 소, 말, 호랑이, 사자' 등을 통합해서 표현하는 '동물'이라는 단어가 생기듯이 더 나아가서 모든 사물을 통합적으로 대신하는 어휘로 '무엇(이것, 그것, 저것)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

1) 김제열, 「'하다'의 의존적 성격 고찰」, 『경희어문학』 15(경희대 국어국문학과, 1994), p.127.

이라는 상위개념의 단어가 생기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나타낼 수 있는 '누구'라는 단어가 생기듯이, 모든 동사를 대신 쓰일 수 있는 상위개념의 어휘로 '하다'가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동작동사를 대신하는 '하다'는 '무엇(을) 하다'로 나타나고, 상태동사를 대신하는 '하다'는 '어떠하다'로 나타나게 된다.

'하다'는 전체동사를 대표하는 상위개념의 동사이기 때문에 실제 표면구조에서 특정 동작의미를 나타내려면 선행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되는 선행요소와 '하다'는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합성되어 하나의 합성어를 형성하기도 하다. 이 때 두 성분이 하나의 낱말로 합성되는 경우는 이차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다.<sup>2)</sup>

'하다'가 형성하는 동사구절은 편의상 '단순'과 '복합'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단순 동사구절이란 '하다'가 표면구조에서 동사 이외의 선행 요소와 직접 결합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종래의 문법에서 '하다'가 전성접미사로서 선행 요소와 결합하여 동사를 형성한다고 한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사랑한다, 상냥하다, 흔들흔들한다"등이 그 보기이다. 복합 동사구절이란 '하다'가 선행 동사류와 어울려서 복합 구절을 이루는 경우이다. 종래에 '하다'가 선행 동사류 또는 문장과 어울려서 보조동사로서 주동사와 어울린다고 한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인용문, 사동법, 부정법 등을 이루는 '하다'의 쓰임이 그 보기가 된다.<sup>3)</sup> 많은 국어학자들이 '하다'의 기능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아직도 통일된 견해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하다'가 대동사라거나 형식동사라거나 하는 논의를 접어두고 현대국어의 형용사 특질과 빛깔형용사에 '하다'가 결합

2) 이창덕, 『동사 '하-'의 연구』(연세대석사, 1984), p.18

3) 서정수, 『동사 "하-"의 문법』(형설출판사, 1975), p.11.

되는 제주도 방언의 특이성을 중심으로 중세국어에서의 경우를 더  
붙어 살펴봄으로써 공통점을 찾아보겠다.

## 2. 현대국어의 형용사의 특질

국어의 형용사를 다른 언어들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특징은 시  
제를 나타내는 요소 및 동사에 붙는 다른 어미와 직접 어울리며 동  
사처럼 주서술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점이다.

- (1) ㄱ. 순애가 아프-∅-다.  
      ㄱ' 순애가 아프-았/었-다.
- ㄴ. 순애의 어머니께서 건강하-시-∅-다.  
      ㄴ' 순애의 어머니께서 건강하-시- 았/었-다.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용사의 현재시제는 (1ㄱ)처럼 무형태소  
이지만 (1ㄱ')에서 과거시제 어미 '-았/었-'과는 바로 어울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어의 존칭어미 '-시-'는 일종의 주어 일치 요소인데  
(1ㄴ)과 같이 역시 형용사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국어의 형용사는 다른 언어들 형용사와 매우 다른 통사적 특징  
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이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동사의 대부분  
이 행동을 나타내는 반면 형용사는 상태성을 나타낸다. 형용사의 이  
러한 보편성은 국어의 형용사에도 적용된다. 이 성격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통사 현상으로 표현된다.

- (2) 순애가 아프-ㄴ-다.

(2)에서 '아프다'라는 형용사는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ㄴ-'과 함께  
나타나지 못한다. 즉 동사와 함께 어울려서 현재 및 현재진행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는/은'과 형용사는 함께 나타나지 못한다. 현재 진행 시제는 행동을 전제로 하는 시제이므로 형용사의 상태성과 의미적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어 형용사가 규칙적으로 어울리는 굴절어미 중에 현재 진행 시제와 관계된 요소들만을 배제하는 현상은 형용사의 핵심적인 성격인 상태성이 국어에도 유지되고 있는 증거이다. 모든 동사가 다 행동동사는 아니다. 동사 중에도 소수의 상태성 동사가 있다. 그러나 모든 형용사는 예외없이 상태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형용사와 동사는 의존적 굴절형태소 뿐만 아니라 여러 구조에서 동사 '하-'와 함께 나타난다. 그러한 예들은 다음과 같다.

- (3) ㄱ. 순애가 바쁘지 아니-하-(\*ㄴ)-다.  
      ㄴ. 순애가 수일을 만나지 아니 -하-ㄴ-다.
- (4) ㄱ. 수일이 성격이 좋기는 좋다.  
                하-(\*ㄴ)-다.  
      ㄴ. 순애가 생선을 먹기는 먹는다.  
                하-ㄴ-다.
- (5) ㄱ. 학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ㄴ-다.  
      ㄴ. 순애는 오늘 서울에 가야 하-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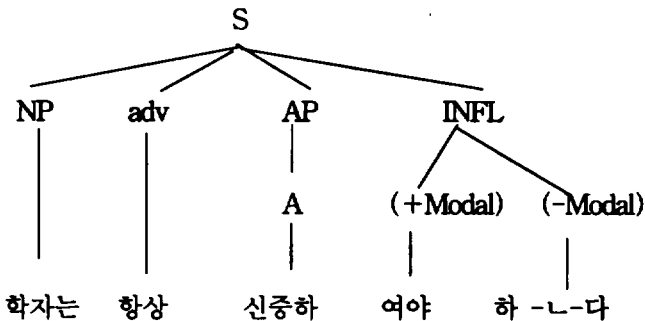
동사 '하-'는 최소한 행동성을 지닌 동사인데 어떻게 형용사의 상태성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동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가?

또 (3), (4)에서는 굴절요소가 동사 '하-'에 덧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각각의 ㄱ에서는 여전히 현재시제형어미 'ㄴ'을 배제하고 있는데 왜 (5)에서는 주서술어의 범주와는 상관없이 이 형태소와 똑같이 동사 '하다'에 덧붙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조미정은 이와 같은 특징을 (5)의 문법동사 '하-'가 (3)와 (4)의 경우처럼 통사법칙에 의해 삽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만약 '하-'가 심층구조에서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5)의 주서술어인 형용사가 아래의 비문법인 예처럼 현재 시제형 어미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6) \*학자는 항상 신중하-ㄴ-다.

그러면 심층구조에 나타나는 요소로서 실제로 동작의 진행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5)에서 '-어야 하-'의 구조는 서술어인 형용사나 동사와 어울려 필요성의 양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독립된 문법동사와 의존형태소가 함께 구성되어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어의 형용사와 동사가 굴절요소교점 아래 지배되는 요소들과 공통으로 어울릴 수 있다. 이 위치에는 의존적인 굴절요소 뿐만 아니라 '-어야 하'와 같은 양상구조도 나타날 수 있다. 국어의 형용사가 연결동사의 매개없이 직접 주서술어 자리에 오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양상구조와도 어울릴 수 있다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심층구조에서부터 굴절요소 교점 아래 나타나는 문법동사 '하-'의 역할은 심층구조에서 정해지지만 양상 구조의 일부로서 굴절요소 교점 아래 있는 통사적 위치에서 문법동사 '하-'의 행동성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지배-결속 이론에서 주제역할은 가장 가까이에서 자매요소를 지배하는 어휘로 된 지배자, 즉 형용사가 부여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 지배하는 자매요소인 주제에게 주제 역할을 부여한다. 도표에서 구절구조의 핵의 자리가 아닌 굴절요소 교점 아래 나타난 문법동사 '하-'는 아무리 독립된 어휘라고 해도 구조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주제역할부여에 참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자질은 (3)와 (4)의 경우처럼 효력이 없이 중화된다. 따라서 주서술어인 형용사의 상태성과도 대치되지 않는다.<sup>4)</sup>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하다'와 결합하는 모든 명사와 부사의 기저구조는 '명사/부사+하-'라는 논리인데 그러면 명사와 부사라는 명칭이 필요가 없어지고 그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이 불가능해진다.

제주도 방언과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빗갈 형용사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 3. 제주도 방언에서의 빗갈 형용사

'가맏다'의 방언형으로는 '가맏다, 거맏다, 까맏다, 꺼맏다, 거므스름하다' 등이 있다. 접두사 '시-, 새-, 깃-'이 연결되어 사용됨은 다른 어휘와 마찬가지로, '-스름-'이 들어간 '거무스름다'는 '덜 가맏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도 또한 다른 어휘와 같다.

(7) ㄱ. 서편 하늘이 어예 거맏해 붙언.

---

4) 조미정, 「국어 형용사의 특징과 문법동사 -하의 관계」, 『국어국문학』97 (국어국문학회, 1987), pp.200~202.

## 제주도 방언에서 빗깔 형용사와 '후다'의 결합 양상

(서편하늘이 갑자기 거뭇게 돼버려.)

- ㄴ. 이 자리도새긴 털광 꺼멍흔 게 잘도 윤지우다.  
(이 '자릿돼지'는 털도 꺼멍게 된 것이 잘도 '윤집니다'.)
- ㄷ. 시러미가 가망흔게 익어싯테다.  
(시로미가 가망게 익었습니다.)

(7ㄱ)은 날씨를 미리 점치어 보는 말에 해당한다. 서쪽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면서 거뭇게 되어 비가 올 듯하다, 또는 바람이 일 것 같다는 뜻으로 쓰인다.

(7ㄴ)의 '자릿도새기'란 '아직 어려서 두 마리를 같은 우리에 넣고 기르는 꼬마 돼지'를 말하는 제주도 방언이며, '윤지다'는 '길짐승의 새끼가 보통보다는 살지고 아주 크다'는 뜻이다.

'노랑다'의 방언형으로는 '노랑흔다, 누렁흔다, 노리롱흔다, 누리롱흔다, 노리스루으다, 누리스롱흔다'등이 있다. '롱, 룡, -스롱'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노리롱흔다, 노리스롱흔다, 누리스롱흔다'들은 '덜 노랑고 덜 누런 빗깔'을 나타내는 어휘로 다양한 빗깔 감각을 표현하는데 쓰인다. 접두사인 '시-, 새-, 짓-'이 연결되어 사용된다는 점은 다른 색채어휘와 같다.

- (8)ㄱ. 유채고장 노랑흔게 잘도 피어서라.  
(유채꽃이 노랑게 잘도 피었더라.)
- ㄴ. 그 치매 멀리서 보난 노리롱흔 게 고와라.  
(그 치매 멀리서 보니까 노르무레한 게 곱더라.)
- ㄷ. 지네 보린 누렁흔게 너미 익어부난 그만씨흔 벼롬에도 누엇주.  
(자네 보리는 누렇게 너무 익어서 그만큼한 바람에도 누웠지.)
- ㄹ. 춤웨밧디 가보난 이제사 노리스롱헙서라.  
(춤외밭에 가보니 이제야 노르스름하게 되고 있더라.)

'벌정다'의 방언형들로 '벌정흔다, 빨강흔다, 불고롱흔다, 불그스롱

하다'등이 있으며 '시-, 새-, 짓-'을 앞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9) ㄱ. 동편 하늘이 벌겍흔 게 또 산불났구나.  
(동편하늘이 벌겍게 된 것이 또 산불 놓았구나.)
- ㄴ. 탈 하영 타 먹어부난 손이영 입바위영 불그롱하엿주.  
(산딸기 많이 따 먹어 손과 입술이 빨그레하였지.)
- ㄷ. 보리낭으로 불 솟단 보난 양지가 불그롱하여수다.  
(보리짚으로 불 때다보니 얼굴이 빨그레 하였습니다.)
- ㄹ. 앞 우영엿 양두 빨강하게 잘도 익어십테다.  
(앞 트랙에 있는 양두 빨강게 잘도 익었습니다.)

'파랑다'의 방언형으로는 '파랑하다, 퍼렁하다, 푸리롱하다, 파리롱하다, 피렁하다'등이 있다. 이중 '피렁하다'는 파란 빛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보통은 좋지 못한, 불쾌한 뜻으로 자주 쓰이는 것 같다. 물론 접두사 '시-, 새-, 짓-'이 연결되어 사용됨은 두말할 나위 없다.

- (10) ㄱ. 먼 하늘이 파랑하연 비 아니오쿠다.  
(먼 하늘이 파랑게 되어 비 아니 오겠습니다.)
- ㄴ. 눈 맞인 '퍼데기'는 퍼렁해사주.  
(눈 맞은 '퍼데기'는 퍼렁게 되어야지.)
- ㄷ. 아시네 마놓은 파리롱해연 금이나 받아 지크란게.  
(아우네 마놓은 파랑게 되어 값이나 받을 수 있겠더라.)
- ㄹ. 양지가 피렁흔 게 곧 죽엄직이.  
(얼굴이 파리한 게 곧 죽을 듯이.)

(10ㄴ)의 '퍼데기'란 배추의 한 종류로 노랑고 하얀 배추속대가 없이 잎이 옆으로만 퍼져서 마치 위에서 누른 듯 납작한 배추를 말한다.

'희다' 계통의 방언형으로는 '히다, 히영하다, 하양하다, 허영하다, 헤영하다, 헤지근하다, 헤뜩하다, 헤뚜룩하다, 히뚜룩하다, 히뚜롱하



다'등이 있다.

- (11) 가. 저 사금파리 너무 히영ㅎ여부난, 눈즈급다 치와불라.  
 (저 사금파리는 너무 희어 눈이 부시다.)
- 나. 이 하양ㅎ 종이에다 앵그리곤 씨지느냐?  
 (이 하얀 종이에다 그렇게 낙서를 하면 쓸 수 있겠느냐?)
- 다. 해영ㅎ 돛궤긴 김치에 감아 먹어사 먹어진다.  
 (허연 돼지고기는 김치에 말어 먹어야 먹어진다.)
- 르. 이제 해지근헬시매 밧디 글라.  
 (이제 날씨가 점점 맑아지고 있으니 밭에 가자.)
- ㅁ. 해뜰헬당 비오곡 해뜰헬당 비오곡 어디 김질 메지크라.  
 (빛이 잠깐 비쳤다가 비오고 빛이 잠깐 비쳤다가 비오고 어디 김 메지겠는가?)
- ㅂ. 창이 해뚜룩ㅎ기 전에 나사사 얼굴에 거미줄 걸리주.  
 (창이 해옴스름하기전에 준비를 마치고 길을 나서야만 얼굴에 거미줄 걸린다.)
- ㅅ. 이 빨렌 히뚜룩ㅎ 게 솔른 생이여.  
 (이 빨래는 '히뚜룩한'게 삶은 모양이다.)
- ㅇ. 히영ㅎ게 눈 더핀 할락산은 어디서 보아도 좋습주.  
 (하얗게 눈 덮인 한라산은 어디서 보아도 좋습니다.)

제주도방언의 빛깔 어휘들을 표준어와 견주어 볼 때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표준어에서는 형용사의 성질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면, 제주도방언의 어휘들은 형용사의 성격과 함께 동사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표준어에서는 빛깔의 농도 차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시-'와 '새-'라는 접두사가 연결되어 '거뭇다'가 '시거뭇다', '새까맣다'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있다면, 제주도방언에서는 '짓-'이란 접두사까지 연결시켜 '시벌경ㅎ다, 새빨강ㅎ다, 짓빨강ㅎ다'로 사용하여 감정 표현

의 차이를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sup>5)</sup>

제주도방언에서는 빗깍에 대한 표현이 상태동사 기본 어간에 일차 단계로 '-ㅁ'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 '하다'를 결합시키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표준어의 색채에 대한 기본 표현어인 '노랗다' '퍼렇다' 등도 '노라+∅+하다' '퍼리+∅+하다'와 같은 기저형으로 가정할 수 있다.

(12) ① 노랑하다

누렁하다

①' 노리롱하다

노리수롱하다

노립조고롱하다

누리롱하다

누립수롱하다

①'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② 까망하다

거멍하다

가망하다

②' 거무스름하다

②' 검으스름하다

③ 파랑하다

퍼렇하다

③' 푸리롱하다

파리롱하다

푸리수롱하다

③' 푸르스름하다

파르스름하다

5) 강영봉, 『제주의 언어 I』 (제주문화, 1997), pp.18~29.

(12) ①~③에 대한 기본 표현에 관해서 색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파생표현이 (33) ①'~③'이며 이들의 표준어를 (33) ①''~③''로 설정할 수 있다.

①'~③'가 '상태동사 파생어간 +ㅁ+하다'로 ①''~③''가 상태동사 '파생어간+ㅁ+하다'로서 똑같은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제주도방언의 '-ㅁ'이 명사화 접미사라는 것은 표준어의 '-ㅁ-'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확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물이 노랑했져.

하늘이 퍼렇했수다.

양지가 벌경했싱게.

술바위가 거멍했수다.

그만해도 얼굴 호양했시네게.

(13)와 같이 '-ㅎ다'에 대해서 동사와 동일한 어미활용을 시켜서 동작화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색상의 상태를 변화하는 것을 동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시키는 것은 'ㅎ다'의 어간에 결합된 지속상 형태소인 '-암시-/-엄시-'이다. 이 '-암시-/-엄시-'는 '-고 있-'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선행 동작이 다음 동작으로의 이행을 표현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4) ① 푸르스름하다(푸리릉ㅎ다: 방언형)

→\*㉠ 하늘이 푸르스름하고 있어요.

㉡ 하늘이 푸리릉했수다.(방언형)

② 붉으스름하다(블그릉ㅎ다: 방언형)

→\*㉢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있다.

㉣ 얼굴이 블그수릉했져.(방언형)

(14)와 같이 '-암시-/-엄시-'는 '-고 있-'에 대응된다고 해서 방언 형과 같은 ㉔의 표현을 ㉓과 같이 표현할 수는 없다. 여기서 제주도 방언의 상태동사를 동작화시키는 특수한 언어형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방언에서는 상태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왜 지속상 형태소인 '-암시-/-엄시-/'를 결합시키는가? 이것은 색채의 현상도 하나의 움직임으로 인식하는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 색채가 '변한다'라는 명제는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sup>6)</sup>

즉 제주도 방언의 빛깔 형용사를 명사화하여 '하다'를 첨가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형용사가 본래 동사와 형태에서 공통된 것이어서 그 형태를 일일이 예시하지는 않으나 특기할 것은 기본어간에 '-ㅁ-'을 붙이고 '하다'를 제2차로 붙이어 형성하는 일군의 형용사이다. 퍼렁하다(靑), 벌경하다(赤), 진노랑하다(眞黃), 거멍하다(黑), 히미꾸롱하다(模糊하다), 맨드롱하다(미지근하다) 등이 있다.

이런 형성은 참으로 흥미있는 형성법이며 표준어에서는 그렇그렇하다, 어수룩하다 처럼 -ㅁ-, -k(g)-으로 간혹 나타난다.

#### 4. 중세국어의 빛깔형용사

중세국어 중 빛깔형용사에서 제주도 방언에서 보인 것처럼 '하다'가 결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5) ㄱ. 物이 하야하야(杜 8:53)

하야호 션 머리터리(杜 17:8)

6) 강정희, 「제주도 방언의 동작화 과정에 대하여」, 『제주방언 연구』 (한남대출판부, 1988), pp.226~227.

제주도 방언에서 빛깔 형용사와 ‘ㅎ다’의 결합 양상

- 서근 째 허여하야 물어데시니(杜 16:33)  
 늑논 벵큰 므래 디나 해야하교(杜 11:47)  
 비논 긴 ㄱ롬돌 머거 해여하도다.(杜 12:13)  
 나. 늑출 마조 보와서 거머호몰 슬코(杜 20:27)  
 다. 감온 불가파라홀 씨라(法華 2:12)  
 고존 촌 곳부리 벌거호미 이괴엿도다(杜 10:38)  
 라. ㄱ라멧 雲霧 | 누러하도다(杜 10:45)  
 마. 터리논 프러누러코(杜 16:40)  
 터릿 비치 프라불가하샤미(月釋 2:58)  
 몃 나뭇 그티 퍼러하교(杜 6:48)  
 궂 우미 파라하도다(杜 6:51)

‘하야하다, 거머하다, 벌거하다, 누러하다, 퍼러하다’ 등이 어원적으로 ‘용언어간 + -아/어 하다’ 구문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히다, 겁다, 붉다, 누르다, 프르다’ 등의 형용사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누러하다’류와 ‘누르다’류를 대조해 보면 비단 활용에서 판이할 뿐 아니라 ‘누러하다’류가 ‘누르다’류 보다 동작성을 가지고있음을 알게 된다. 즉, ‘-아/어 하-’가 개재되어 동작성 유무의 차이를 보인다.

아래의 (16)과 같이 ‘누러하다’류가 형용사외에 동사로 쓰인 예도 보인다. 이것은 이미 ‘-어 하-’가 결합되기 전에도 동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16) 어드우락 도로 히느니(杜 7:14)  
 샷길 나하니 터리 붉느니라(杜 8:19)

‘누르다’ 등이 ‘누러하다’ 등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몇가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먼저 형용사 어간에 ‘-아/어 하-’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형용사 어간의 ‘·/—’모음이 ‘ㅏ/ㅑ’모음으로 변화되는 절차를 생각해야한다. 위 (16)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 단계

에 모음의 변화가 없는 것 ‘불가푼라고’, ‘꼭라불가하샤미’ 등과 저모음으로 변화를 입은 것 등이 함께 쓰이고 있다. 이것은 빗갈 형용사 어간이 ‘-아/어 하-’에 결합될 때 필수적으로 선행어간의 모음동화를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보다 후대에 음성상징에 의해 ‘·/—’모음이 ‘ㅏ/ㅑ’모음으로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런 빗갈어들이 많은 공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문헌에서 이러한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예들이 더 찾아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히다’와 ‘희다’가 공존하지만 단독형으로는 ‘\*해다’ ‘\*헤다’가 文證되지 않은 점 ‘붉다’가 존재하지만 ‘붉다’는 ‘紅’의 의미로는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단독으로 쓰일 경우, 다른의미 ‘明’으로 나타나고 합성 어간으로 ‘붉-(紅)’이 나타나고 있다. ‘붉다’, ‘밝다’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 ‘프르다, 프를다, 꼭르다’가 공존하고 있음에 비해 ‘퍼르다’, ‘과르다’ 등이 찾아질 때 음성상징 운운은 보다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간의 ‘·/—’모음이 ‘ㅏ/ㅑ’로도 표기되는 현상은 다음의 예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17) 히여디디(杜 16:28)  
       히야더(小謔 6:61)  
       해여디니라(杜 1:9)
- (18) 히야브리고(杜 上 9)
- (19) 해야로비(杜初 7:7)
- (20) 흐려디고(杜 20: 16)  
       허려듀미(杜 22:11)

위의 (17) ~ (20)의 예들은 어두음절에서의 /· ~ ㅏ/, /— ~ ㅑ/의 교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예들은 또한 ‘해야하다(白)’가 ‘하야하다’로 표기되는 이류를 생각하게 해준다. 훈민정음은 원래 그 성격상 음소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음 창제자들이 한자의 이분적 음절구조를 본

받아 삼분적인 음절로 표기했기 때문에 /j/는 표기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白’을 의미하는 ‘하다’ 혹은 ‘\*해다’는 ‘해야하다’가 된 다음, 소위 /j/interlude 현상에 의해 ‘하야하다’로도 기록되면서 정작 ‘해야하다’ 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국어에 관한한, ‘하야하다’는 꽤 많이 등장하지만 ‘해야하다’가 그리 나타나지 않은 이런 연유에서가 아닌가한다.<sup>7)</sup>

(21) 거머하다(黑): 누출 마조 보와서 거머하물 슬코=會面嗟黧黑  
(杜 20:27)

벌거하다(紅): \*고즌 촌 곳부리 벌거호미 이괴엿도다=花禁冷  
藥紅(杜 10:38)

누러하다(黃): \*ㄹㄹ매 雲霧 | 누러하다.=江霧黃(杜 10:45)

파라하다(綠): 𑖦 우미 파라하도다=芦葦錄(杜 6:51)

靑衣는 파란 옷 니븐 갖시라(月印 2:43)

錄은 푸르씨라(月印 8:10)

퍼러하다(靑): 몹 나뭇 그티 퍼러하교=葱靑衆木梢(杜 6: 48)

프러누러하다(靑黃): 터리는 프러누러코=毛爲綠縹(杜 16: 40)

불가파라하다(紅綠): 紺은 불가파라홀씨라(法華 2:12)

푸라불가하다: 터릿 비치 푸라불가하샤미 孔雀의 모기 ㄹㄹ  
시며(月印 2:58)

하야하다(白): 物이 하야하다=物白(杜 8:53)

허여하다: 서리에 염피 허여호물 甚히 듣노니=甚聞霜薶白(杜 7:40)

(21)과 같이 ‘빗깔형용사 어간+하다’가 결합된 형태와 ‘거머다, 노라다, 파라다’ 등이 중세국어에서 병존하고 있었는데 이는 ‘거머하+다’라는 식의 분석이 타당하지 않음을 말한다.

제주도 방언의 ‘거머하다’는 중세국어의 ‘거머하다’에서 그 기원을

7) 이현희, 「‘하다’어사의 성격에 대하여」, 『한신논문』2 (한신대, 1985), pp.222~228.

찾을 수 있는데 ‘거머’와 ‘하다’사이에 ‘-ㅁ’이 첨가된 형태라고 하겠다.

## 5. 결 론

‘하다’는 기원적으로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동사로서의 특성은 어간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포괄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점점 다양화되면서 파생접미사로서의 기능도 점차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사 어간의 ‘하’와 접미사로서의 ‘하’와 같이 ‘하’의 어원적 기능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중간 범주의 영역이다

제주도 방언의 빗갈 어휘들을 표준어와 전주어 붙 때 표준어에서는 형용사의 성질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면, 제주도 방언 어휘들은 형용사의 성격과 함께 동사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빗갈에 대한 표현들이 상태동사 기본어간에 일차 단계로 ‘-ㅁ’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 ‘하다’를 결합시키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표준어의 ‘상태동사 파생어간+ㅁ+하다’와 똑같은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제주도 방언의 ‘-ㅁ’이 명사화 접미사라는 것은 표준어의 ‘-ㅁ’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확실하다.

‘아야하다, 거머하다, 벌거하다, 누러하다, 퍼러하다’ 등이 어원적으로 ‘용언어간 + -아/어 하다’ 구문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히다, 겹다, 붉다, 누르다, 뜨르다’ 등의 형용사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누러하다’류와 ‘누르다’ 류를 대조해 보면 비단 활용에서 판이할 뿐 아니라 ‘누러하다’류가 ‘누르다’류 보다 동작성을 갖고 있다.

현대국어의 ‘하다’는 본래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한데 빗갈형용사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주도 방언과 중세국어에서는 이것이 가능



함을 보았다. 이는 제주도 방언의 '하다'가 중세국어적 성격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봉, 『제주의 언어』 I, 제주문화, 1994.
- 강정희, 『제주방언연구』, 한남대 출판부, 1988.
- 서정수,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1975.
- 제주도, 제주어사전, 1995.
- 김영희, 『'하다': 그 대동사설의 허실』, 『배달말』9, 배달말학회, 1984.
- 김재열, 『'하다'의 의존적 성격고찰』, 『경희어문학』15,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1984.
- 김창섭, 『'하다' 동사 형성의 몇 문제』, 『관악어문연구』2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7.
- 서정수, 『기능동사 '하-', 『말』15, 연세대 한국어학당, 1991.
- 송병학, 『'하'에 관한 연구:동사의미론적 구조 분석』,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74.
- 윤만근, 『동사 '하-'의 통시적 관찰을 통해본 그 성격과 동사 '하'의 기저구조』, 『언어학』5, 언어학회, 1982.
- 이기동, 『동사 '하다'의 문법』,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1991.
- 이상복, 『'하다'동사에 대하여』, 『연세어문학』6,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75.
- 이창덕, 『동사 '하'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4.
- 이현희, 『'하다'어사의 성격에 대하여』, 『한신논문』2, 한신대학교, 1985.

영주어문 제1집(1999)

조미정, 「우리말 형용사의 특징과 문법동사 ‘하-’의 관계」, 『국어국문학』97, 국어국문학회, 1987.

허 용, 「‘하다’용언고」, 『아세아 학보』1, 영남대, 1965.